

제2외국어/한문 영역 [한문]

제 5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는 한자는? [1점]



교사: 그림에 대한 느낌을 말해 볼까요?

승주: 선생님, 이 그림은 자연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교사: 그래요. 이 작품은 조선 초기 문인 화가인 강희안의 '高士(㉠)水圖'라는 그림이에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매한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 ① 官 ② 觀 ③ 冠 ④ 貫 ⑤ 館

2. 다음 중 음이 같은 한자끼리 묶은 것은? [1점]

ㄱ. 防	ㄴ. 訪	ㄷ. 旅	ㄹ. 遊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전에서 한자를 찾았을 때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7획 【信】 총 9획 신 자해 믿다, 믿음	(㉡) 12획 【喜】 총 12획 희 자해 기쁘다, 즐겁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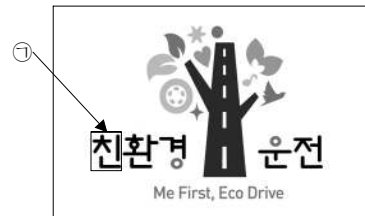
- ① 人 ② 言 ③ 人 ④ 言
⑤ 口 8 9 9

4. 두 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들 때 ㉠, ㉡의 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心 + 生 = (㉠) ○ 人 + 也 = (㉡)

- ① 성 ② 성 ③ 성
야 타 지
④ 생 ⑤ 생 ⑥ 생

5. ㉠에 해당하는 한자는? [1점]



- ① 眞
② 新
③ 視
④ 親
⑤ 覺

6.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옛날에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나면, 가장 우수한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 모습이 다른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형세라 하여 (㉠)(이)라고 하였다. 이후로 이 말은 여러 책이나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① 發行 ② 對答 ③ 腹案 ④ 考試 ⑤ 壓卷

7. ㉠에 알맞은 것은? [1점]

無 道 人 之 短,
無 說 己 之(㉠).

- 『문선』 -

- ① 長 ② 哀 ③ 怒 ④ 感 ⑤ 窮

8. 다음 글에서 '도둑'의 상황에 해당하는 성어는? [1점]

허정이 길에서 은을 주웠는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그 은의 절반을 주니 허정이 "내가 은을 탐냈다면 어찌 당신이 오기까지 기다렸겠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사실 저는 은을 훔쳤다가 술에 취해 잃어버렸는데, 지금 공께서는 굴러든 은도 받지 않으니, 실로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도둑은 이에 은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행실을 고쳐 착한 사람이 되었다.

- 『청성잡기』 -

- ① 漁父之利 ② 不恥下問 ③ 馬耳東風
④ 刻舟求劍 ⑤ 改過遷善

9.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人定 ② 人情 ③ 仁政 ④ 仁情 ⑤ 認定

10. 다음 글의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비슷함을 추구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것을 '꼭 닮았다'고 하고, 분간이 어려운 것을 '진짜 같다'고 한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뜻과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녹천관집서』 -

- ① 似而非 ② 碧昌牛 ③ 千里眼
④ 紅一點 ⑤ 如反掌

11.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속뜻은? [1점]



- ① 힘든 일 뒤에 즐거움이 찾아온다.
②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한다.
③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춘다.
④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⑤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심하게 고생한다.

12. 다음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飲墨行紙, 吐舌成字. - 『병곡집』 -



13. 다음 글의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더러운 땅에서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항상 고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고 더러움도 용납할 도량을 가져야 한다.
- 『채근담』 -

- ① 言出難更收. ② 人至察則無徒.
③ 人不學, 不知道. ④ 以責人之心, 責己.
⑤ 智者千慮, 必有一失.

14. 다음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有無故而阿君者, 君其愼之.

- 『전국책』 -

- ① 민채: 相扶相助해야겠군.
② 은지: 靑出於藍이 따로 없군.
③ 우철: 浩然之氣를 길러야겠어.
④ 다인: 巧言令色을 조심해야겠어.
⑤ 영신: 百折不屈의 의지가 필요해.

15.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 ㉡의 한자 표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榮華 映畫 ② 映畫 榮華 ③ 英貨 映畫
④ 榮華 英貨 ⑤ 映畫 英貨

16.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一年之計, 在于春. 一日之計, 在于(㉠).

- 『잠기』 -

- ① 晨 ② 友 ③ 富 ④ 冬 ⑤ 農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慍(은): 성내다

○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 『논어』 -

17.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자기 ② 따르다 ③ 저절로
④ ~로부터 ⑤ ~로 인하여

18. ㉡을 풀이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食 - 無 - 求 - 飽 ② 無 - 食 - 求 - 飽
③ 食 - 求 - 無 - 飽 ④ 無 - 求 - 飽 - 食
⑤ 食 - 飽 - 求 - 無

19. 위 글에 나타난 '君子'의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말은 신중하게 한다.
② 거처함에 편안함을 찾지 않는다.
③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④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는다.
⑤ 도를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 잡는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河津, 一名龍門, 水險不通, 魚鼈之屬, 莫能[㉠]上. 江海大魚, 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上則[㉡]爲龍.
* 河津(하진): 지명 * 鼈(별): 자라 - 『후한서』 -

20. ㉠의 풀이로 알맞은 것은?

- ① 위 ② 임금 ③ 오르다
④ 바치다 ⑤ 중요하다

21. ㉡과 의미가 통하는 성어는?

- ① 外柔內剛 ② 搖之不動 ③ 立身揚名
④ 咸與差使 ⑤ 愛之重之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安東俗, ㉠於每歲正月十六日, 金海, 於四月八日, 及端午日, 丁壯, 畢會, 分左右隊, 投石以決[㉡]勝負. 雖死傷, 不悔, 謂之[㉢]石戰. 征倭時, 募爲先鋒, 賊不[㉣]敢前.
* 倭(왜): 왜국 * 鋒(봉): 칼날
- 『지봉유설』 -

22. ㉠, ㉡의 풀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에 감히 | ② ~보다 감히 | | |
| ③ ~에 갖다 | ④ ~보다 용감하다 | | |
| ⑤ ~에게 용감하다 | | | |

23.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승패 ② 승부 ③ 승리 ④ 패배 ⑤ 패색

2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을 둘로 나누었다.
② 이긴 편은 상을 받았다.
③ 젊은 남자들이 참여하였다.
④ 적군을 막아내는데 이용되었다.
⑤ 부상을 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崔瑗, ㉠少時, 其父, 常戒之曰: “見金如石.” 瑗, 常以四字, 書諸紳, 終身[㉡]服膺而勿失, 雖秉國政, 威行中外, 而一毫, 不取於人, 家才足食而已.
* 崔瑗(최영): 사람 이름 * 紳(신): 띠 * 膺(웅): 가슴
* 秉(병): 잡다 - 『용재총화』 -

25. ㉠과 짜임이 같은 것은?

- ① 日沒 ② 海洋 ③ 強弱 ④ 登校 ⑤ 休日

26. ㉡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疑心 ② 放心 ③ 落心 ④ 銘心 ⑤ 安心

27. 위 글에서 아버지가 주려는 교훈에 해당하는 것은?



[28~3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日[㉠]入投孤店, 山深不掩扉.
鷄鳴問前[㉡]路, 黃葉[㉢]向人飛.
* 掩(엄): 닫다 * 扉(비): 사립문
- 권필, 「도중(途中)」 -
(나)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歇(혈): 그치다
- 정지상, 「송인(送人)」 -

28.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지다 ② ㉡: 길 ③ ㉢: 지난번
④ ㉣: 독 ⑤ ㉤: 더하다

2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 보 기 >
ㄱ. (가)의 제2구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ㄴ. (가)의 제4구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ㄷ. (나)의 형식은 칠언율시이다.
ㄹ. (나)의 운자는 ‘多’, ‘歌’, ‘波’이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② (가)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④ (나)에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⑤ (나)는 대우를 통해 이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